

2 뉴스

교육부 '학종' 후속 감사 교사추천서 검증 미흡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우리학교가 '교육부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에서 관계자 6명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사추천서 유사도 사후검증에서 유사도가 의심·위험수준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점, 사정제외 등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학종 특정감사는 앞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학종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정황이 포착된 6개 대학(고려대·서강대·건국대·서울대·성균관대·경희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지난 10월 13일이다. 감사 결과 6개 대학에서 총 209건의 서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관계자는 총 108명으로 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경고 74명, 주의 14명이다.

우리학교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교사추천서 유사도 사후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교사추천서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담당 교사가 작성한 추천서를 말한다. 우리학교 또한 2020학년도까지 수시전형에서 선택서류로 교사추천서를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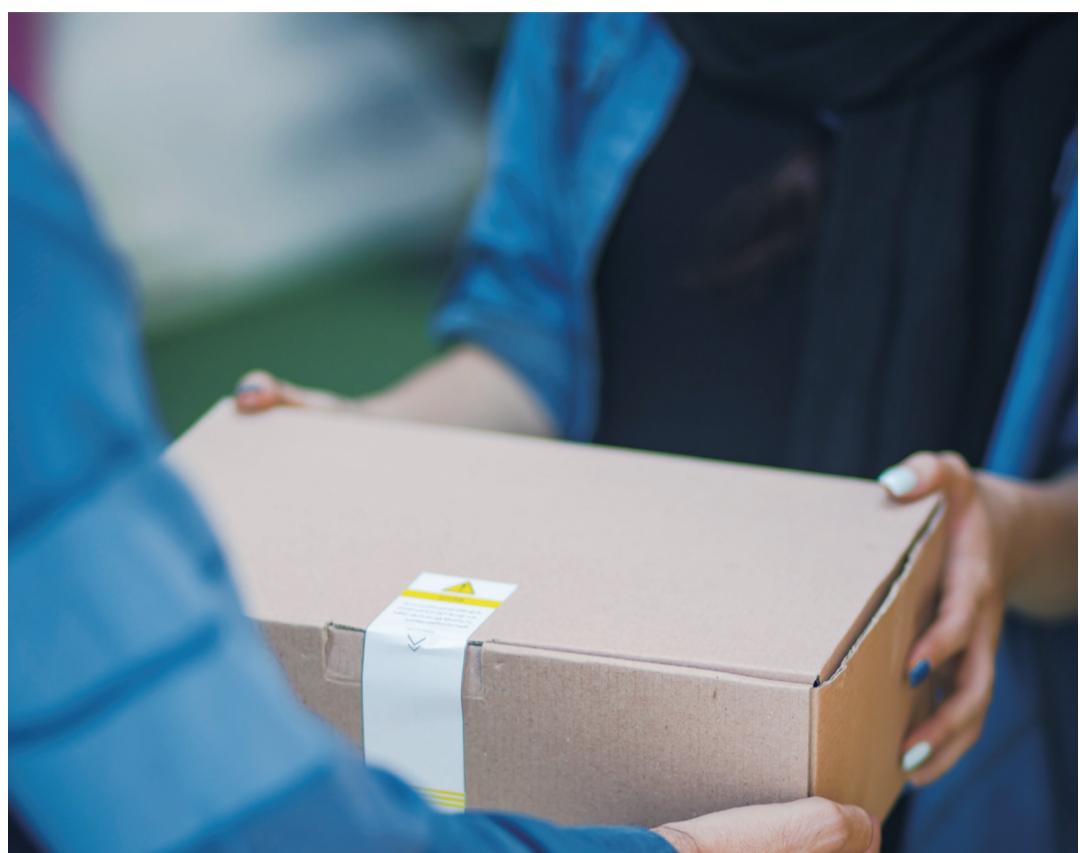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추천서 유사도 사후검증 결과 미심의'에 따르면, '2016학년도 국제캠퍼스 학생부 종합전형' 교사추천서 유사도 사후 검증에서 학교생활충실자전형 지원자 A 씨 등 최종 합격자 5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는 50% 이상인 '위

험수준'에 달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종 전형의 최종 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 또한 '위험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사전에 심의를 거쳤고 대상과 위원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총 3회 사후검증결과에 대한 서류적절성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 이후라도 합격자 지원서류를 재검증하는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경희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서류 적절성 검증 처리 지침'에 따르면 서류적절성 사후검증 및 처리절차는 합격자의 교사추천서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대학 내, 대학 간 유사도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유사도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교사추천서의 경우에는 회신 받은 소명서와 유사도 검사문을 서류적절성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이어 '서류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우리학교는 선택서류였던 교사추천서를 2021학년도부터 수시 모든 전형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입학처 관계자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사추천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총학은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감사 표현을 독려하는 공지를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진=unsplash)

택배 기사 '응원' 사업 갑론을박

이현정 기자 ysmhip6@kh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택배 노동자 독려 사업' 논란과 관련해 "택배 발송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총학은 택배 노동자 관련 게시물을 총학 공식 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캠 총학

은 10월 22일과 11월 4일, 택배노동자에게 보내는 손편지 릴레이를 비롯해 관련 카드뉴스를 게시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택배 수령 시 감사 문자', '해당 카드뉴스 공유' 등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학은 택배 노동자 독려 사업과 관련한 후속 실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생들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택배 노동자 독려에 대한 메시지에는 동의하지만 학생들의 대표자인 총학이 공식 SNS 계정에 특정 직군에 대한 게시물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카드뉴스 공유는 지목릴레이 형식으로, 총학에 의해 다음 게시물 작

성자로 지목된 미술대학 학생회는 "태그 삭제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총학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총학은 "지금까지 진행한 택배 발송 사업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이 문제를 학우들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관련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에서 학우들의 만족과 동의를 얻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지목 릴레이에 대해 "단과대부터 시작해서 다른 단과대, 나아가 학우들까지 참여하는 것을 의도했다"며 "후속 실천 사업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시대 경희를 기록하다

주 제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2020년 경희의 모습

응모분야

분야	분량	비고
동영상	1분 이내 ※ 10편까지 가능	FHD (1920×1080) 화질
사진	4컷 이상 10컷 이하	3400×2400pixel 이상의 JPEG(jpg)파일
웹툰	4컷 이상의 단편 웹툰 ※ 최대 10페이지 분량	해상도 300dpi 사이즈 컷 당 1200×1200px
에세이	2500자 ~ 5000자	200자 원고지

참가 방식

가. 경희기록관 인스타그램(@khu_archives) 팔로우
나. 참가신청서 및 공모작 제출 : archives@khu.ac.kr

참가 자격

경희대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접수 기간

2020년 11월 9일(월) ~ 12월 4일(금) 17시 30분까지

시상 내역

- 최우수상(1편) : 상금 50만원
- 우수상(3편) : 상금 30만원
- 장려상(5편) : 상금 10만원

참가 혜택

참가자 전원에게 경희기록관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 의

경희기록관
(전화 : 02-961-0759 / 이메일 : archives@khu.ac.kr)